

# 미얀마 전역 시민들이 강을 이뤘다

### 유혈진압 경고에도 최대 규모 시위 수백만명 '22222 총파업' 참여 '군부독재 타도' 외치며 거리 행진

쿠데타 발발 이후 4주째로 접어든 22일 미얀마 전역에서 쿠데타를 규탄하는 총파업이 벌어져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섰다. 군사 정권이 전날 밤 성명에서 '인명 피해'까지 거론해 유혈진압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쿠데타 이후 가장 많은 시민들이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군정을 압박했다.

현지 매체 및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찍부터 최대 도시 양곤 등 미얀마 전역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SNS에는 시위 중심지로 부상한 양곤 흘레단 사거리에서부터 주말 동안 2명이 군경 총격으로 숨진 만달레이는 물론, 북부 까친 주 마나에서 최남단 꼬타웅까지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대의 모습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SNS에 "수 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가장 많은 군경이 평화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진짜 강 옆에 사람들이 강을 이뤘다"며 거대한 군중을 묘사했다. 이 사진들이 실린 SNS에는 '버마(미얀마) 혁명'이라는 문구가 빼짐없이 등장했다.

쿠데타 이후 의료진 등이 주축이 돼 조직된 '시민불복종운동' 측은 주말 SNS를 통해 이날 미얀마 전역에서 모든 업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이자고 촉구했다. 총파업은 1988년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며 진행됐던 이른바 '8888' 시위를 모델로 삼았다. '8888 시위'는 1988년 8월8일 당시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수 만명의 학생들이 절대권력을 휘두른 독재자 네윈 장군의 하야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인 것을 일컫는다.

2021년 2월 22일에 총파업을 통해 벌이는 쿠데타 규탄 시위라는 점에서, 2를 5개 붙여 '22222 시위'로 불리고 있다고 이라와디는 전했다. SNS에서는 '2Fivegeneralstrike' (22222 총파업)이라는 해시태그도 붙었다. 이에 호응해 소규모 상점 및 영업장은 물론 미얀마 최대 소매업체인 시타마트와 태국의 대형 도매업체인 마크로 등도 하루 휴업 사실을 공지했다.

이에 대해 군정은 총파업 하루 전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군경은 또 전날 밤부터 양곤 시내 곳곳 대서관으로 향하는 길목 등을 포함해 주요 도로 곳곳과 교량을 막았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이날 오전 다리 위에 놓인 대형 트레일러 짐칸을 시민들이 밀어 옮기는 사진도 SNS에 올라왔다. 수도 네피도에서는 경찰이 평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위대 체포에 나섰다. 네티즌들이 SNS를 통해 전했다. 일부 네티즌은 군경 차량이 밤에 양곤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면서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SNS에서는 또 군부가 장갑차에 흰 페인트를 칠한 뒤 경찰(POLICE)이라는 글씨를 써 '위장'했다고 주장하는 사진들도 확산했다. 네티즌들은 "이런 경찰차를 본 적이 있느냐" "군부의 공공기가 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양곤 지역 인터넷은 오전 9시 직전 접속이 가능해졌지만, 휴대전화 데이터 통신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군부는 작년 11월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이 발생했음에도 문민정부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연합뉴스



텍사스 식수 배급 차량 행렬 최악의 한파로 수도를 공급이 끊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버러스타디움에 21일(현지시간) 식수를 배급받기 위해 온 주민들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 정전에 계산대 먹통되자 "그냥 가져가세요"

### 한파에 얼어붙은 시민들 마음 녹인 텍사스 마트

초강력 한파가 몰아친 미국 텍사스의 한 마트가 정전으로 손님들이 결제를 할 수 없게 되자 공짜로 생필품을 내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 연 시민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린더서에 있는 슈퍼마켓 체인 H-E-B 마트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그러자 카트에 물건을 잔뜩 싣고 계산대 뒤에 줄지어 서 있던 손님들 사이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다. 눈이 잘 내리지 않는 남부 지역 텍사스에 북극 한파가 덮치자 놀란 시민들이 쌓인 눈을 겨우 뚫고 비상용 먹거리와 생필품을 사러 나왔지만, 계산대가 먹통이 되면서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던 상황. 한숨과 절망에 싸인 마트는 그러나 금세 훈훈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마트가 현금이 없어 계산하지 못하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물건들을 가지고 나가게끔 계산대를 열어준 것이다. 기저귀, 우유, 과자 등을 높게 쌓은 카트들이 계산대를 그대로 지나가는 모습

본 한 60살 남성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갔던 팀 헤네시는 페이스 북에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카트를 끌고 계산대앞에 선 자신들에게 직원이 그냥 지나가라고 손짓하며 "조심히 운전해서 귀가하세요"라고 인사했다고 말했다.

헤네시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나라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분열도 심해지고 여러 일들이 일어났다"면서 "특히 텍사스는 이런 날씨에 대비를 못한 상태다. 이런 힘든 시기에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눈이 쌓인 탓에 카트를 앞으로 밀지 못하던 한 할머니를 손님이 심시일만으로 나서 도와주기도 했다면서 "모두가 서로를 돕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손님은 현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줄을 서 있던 도중 전기가 나가 생필품을 사지 못할 줄 알았다면서 마트 덕분에 4살 아들을 위한 음식 등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4주째로 접어든 22일, 미얀마 전역에서 수백만명이 참가한 쿠데타 규탄시위가 벌어졌다. 만달레이에서 시위에 나선 시민들이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비트코인 또 최고치...5만 8000달러 돌파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22일 다시 개당 5만8000달러대로 고점을 높였다. 가상화폐 사이트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한국 시간 새벽 4시를 전후로 잠시 5만8000달러 선을 넘었다. 16일 밤 사상 처음으로 5만달러를 넘어선 데 이

어 17일 5만1000달러대, 18일 5만2000달러대, 20일 5만6000달러대를 거쳐 다시 고점을 높였다. 이로써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4배 이상 오른 데 이어 올해 들어서 이미 추가로 100%가량 상승했다. 최고가는 5만8300달러대다. 이런 가격 상승은 최근 비트코인 투자 열풍을 촉

발했던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조차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다는 식의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이뤄졌다. 머스크는 비트코인 회의론자인 피터 시프가 "금이 비트코인과 종래의 현금보다 낫다"고 밝히자 20일(현지시간) 트위터 댓글을 통해 "돈은 물물교환의 불편함을 피하게 해주는 데이터일 뿐이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높은 것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유나이티드 항공 '파편 추락' 보잉 777 운항 중단

### 미국서 엔진 고장...안전 검사 강화 아시아나 7대...코로나로 운항 안해

유나이티드 항공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덴버에서 비행 중 엔진 고장을 일으켜 비상으로 파편이 떨어진 보잉 777의 운항을 즉시 중단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미 제조사 프랫앤드워트니의 'PW4000' 계열 엔진을 장착한 보잉 777 기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스티븐 딕슨 FAA 청장은 성명에서 "엔진 검사 주기를 더욱 좁혀야 하며, 해당 기종은 앞으로 취항이 금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엄격한 안전 기준에 맞춰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과 필요한 추가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운

항 중인 해당 기종은 모두 24대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기계 결합 문제가 드러났다고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블룸버그 통신이 밝혔다. 당시 엔진 날개 하나가 떨어져 나가 파손됐으며, 두 번째 날도 파편에 맞아 즉시 부서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PW4000 엔진 날은 속이 비어 있는 티타늄 재질로 구성돼 있으며, 보잉 777 기종만 사용한다고 FAA가 밝혔다. 사고를 유발한 엔진 날의 금은 내부에 발생해 표면에서는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일본, 한국에서 PW4000 계열 엔진이 장착된 보잉 777 기종을 운항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시아나가 7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코로나19 때문에 운항이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침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